



외면받은 2020년 펀드시장

1. 코로나와 투자

- 3월 급락 이후, 대부분의 자산은 빠른 회복세를 보임.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자산으로는 자금 유입
- 우리나라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직접투자 크게 증가
- 그러나 2021년 펀드 시장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감

2. 2020년은 섹터유형 강세

- 언택트, 헬스케어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주식 유형 중에서는 섹터 유형 강세
-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배당주유형 성과 상대적으로 부진
- 해외주식 유형 중에서는 헬스케어, 중국, 친환경 펀드 성과 우수

3. 펀드 시장의 위축

- 2020년 기관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국내주식일임과 개인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국내주식펀드의 격차는 더 벌어짐
- 펀드 시장을 유지해왔던 인덱스펀드도 작년에는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음
- 직접투자의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간접투자가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필요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코로나와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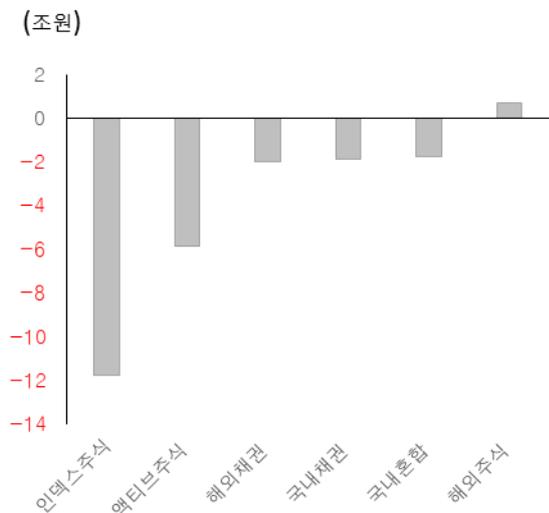
전세계 사람들에게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투자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부부의 투자자산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급락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자산, 특히 주식자산으로는 투자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우리나라 펀드 시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2020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금이 집중 유입되었던 ETF로도 자금 유입은 활발하지 않았다.

2020년 국내주식펀드(ETF포함)에서는 15조 976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월별로 유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3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자금이 유출되었다. 월별 유출규모도 2조원 내외인 달이 7달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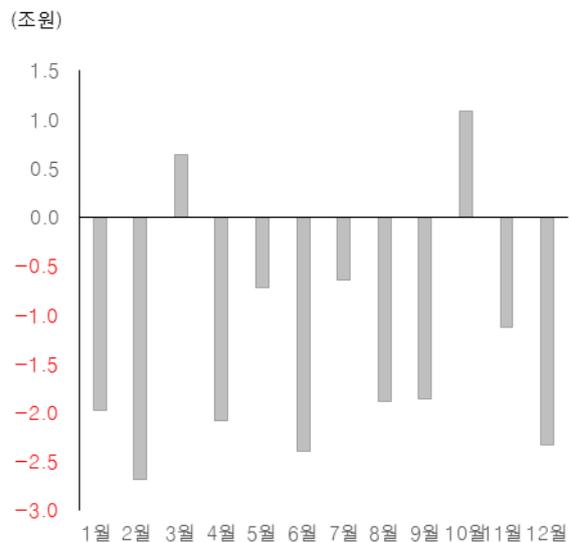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섹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투자와 함께 전망이 밝은 섹터나 유형 등에는 펀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

[차트1] 2020년 해외주식형은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국내주식형은 자금 유출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국내주식펀드(ETF 포함)는 자금 유출 이어짐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2020년은 섹터 유형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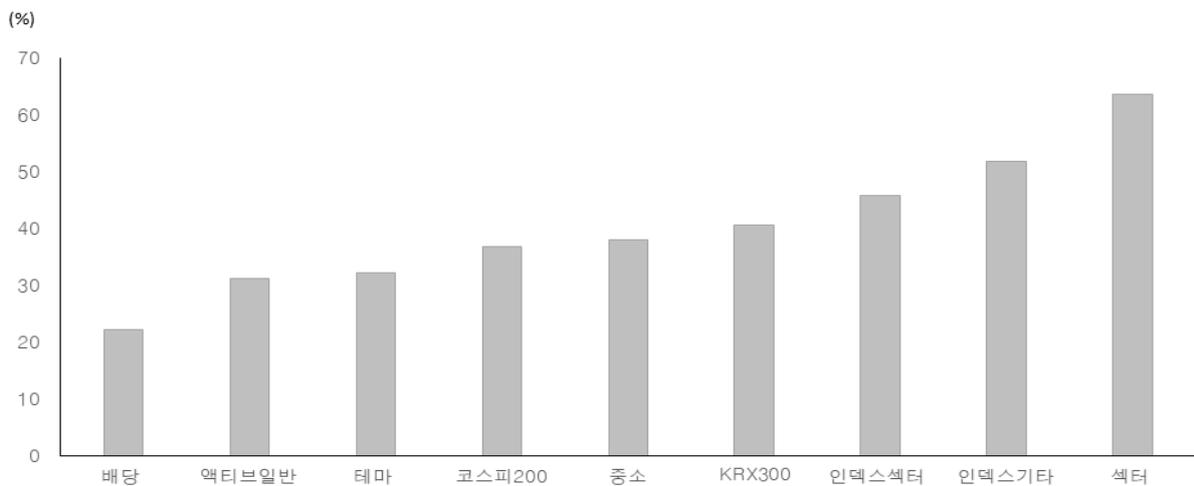
외면받은 펀드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국내주식펀드는 2020년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였다. 액티브유형과 인덱스유형은 각각 연간 기준으로 30.8%와 43.8%의 성과를 시현하였다.

유형 중에서는 섹터유형(액티브)과 인덱스섹터 유형의 성과가 우수하였다. 2차 전지, 바이오, 언택트 등 2020년에 강세를 보인 섹터 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레버리지ETF와 헬스케어섹터펀드 등이었다.

반면, 전통산업과 가치주 등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하였다. 올해는 주식 유형 중에서는 배당주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해외 주식 유형 중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펀드와 중국 주식펀드, 헬스케어펀드의 성과가 우수했다. 반면, 러시아펀드와 브라질펀드, 금융섹터펀드의 성과는 부진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하반기부터 해외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차트3] 2020년은 국내주식 중 섹터유형 강세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펀드 시장의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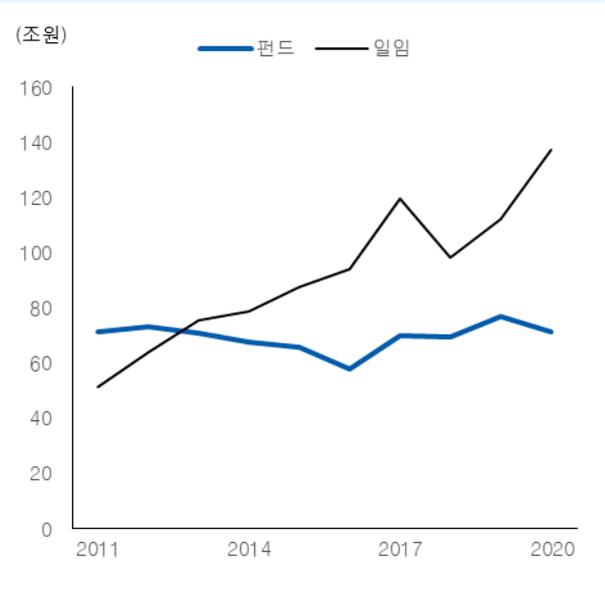
2020년 펀드 시장, 특히 국내주식펀드 시장은 계속 위축되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주식 펀드시장은 2011년부터 계속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기관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국내주식 일임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2020년 국내주식 일임 규모는 137.1조원까지 늘어났다.

국내주식펀드 시장은 크게 액티브유형과 인덱스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주식펀드 규모가 줄지 않았던 이유는 ETF를 중심으로 인덱스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주식시장 급락시에도 ETF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지 않아, 인덱스주식펀드의 규모도 4년만에 줄어들었다. 2021년에는 레버리지ETF 투자를 위해서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인덱스펀드 성장세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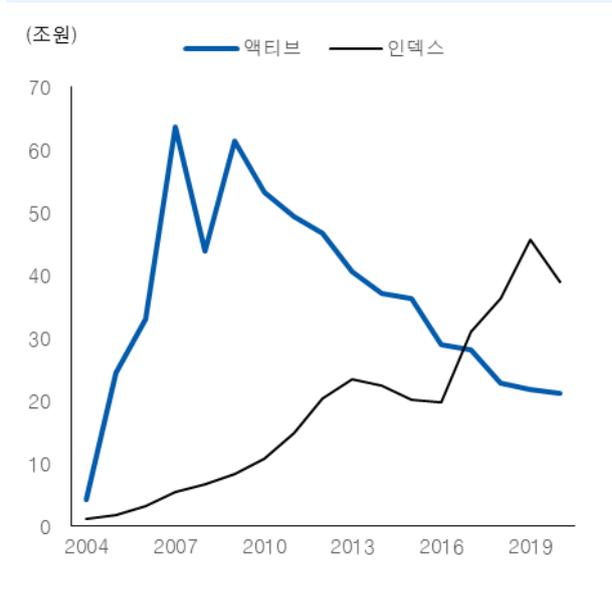
2021년에는 펀드 투자로 직접투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분산효과, 다양성 등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트4] 2020년 국내주식 일임과 펀드의 격차 더 벌어짐



자료: FnSpectrum,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액티브 국내주식펀드의 자금 유출 이어짐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